

실속 재테크

회전·계단식 예금 주목하라

금리 상승기 고객이 직접 이자율 선택

은행권 만기 1~3년, 1~6개월 단위로 설정

계단식은 3개월마다 금리 자동 인상 설계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예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단기 예금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가입기간만을 고려해 상품을 고르면 자칫 이자수익을 놓칠 수도 있다. 단기예금 운용과 이자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투자자라면 '회전식·계단식' 예금상품에 눈을 돌려보자. 이 상품은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되는 예금상품이다. 이자율 상승 추세를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는 예금이다.

◇금리 변동주기 선택하는 회전식 예금 = 금리 변동 주기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컨대 회전주기를 3개월 단위로 설정해 놓고 이달 15일 상품 가입했다면 11월 15일까지는 현재 금리가 적용된다. 3개월이 지난 11월16일부터는 해당 시점의 금리로 변경된다. 변경된 금리는 내년 2월15일까지 적용받는다. 이 상품은 금리 하락기에는 3개월

후 이자가 줄어들 수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3개월 후 금리가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

우리은행의 '키워정기예금'은 1~12개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다. 만기는 1~3년이다. 1개월(연 2.1%) 3개월(연 2.6%) 6개월(연 2.9%) 12개월(연 3.75%) 단위로 회전주기를 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멤버스포인트를 정기예금 가입금액의 최대 1%까지 현금처럼 사용해 원금에 합산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가입금액을 최대 2%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국민은행의 '수퍼정기예금'은 만기가 1~3년이며 1~6개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금리는 회전주기를 1개월 단위로 설정할 때 최고 연 2.3%, 3개월 연 2.75%, 6개월 연 3.0% 등이다.

◇기간별로 금리 오르는 계단식 예금 = 계단식 예금은 회전식 예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상품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은행권 단기 금융상품

(단위:연%)



회전식 예금과 달리 계단식 예금은 3개월마다 자동으로 금리가 오르도록 설계됐다.

하나은행의 '3·6·9 정기예금'은 3개월까지 예치하면 연 2.7%, 6개월까지는 연 2.8%, 9개월까지는 연 2.9%의 이자를 지급한다. 1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3000만원 미만이면 연 3.3%가 적용된다.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연 3.5%, 1억원 이상이면 연 3.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의 '스텝예금'은 3개월 동안 예치하면 연 2.6%, 6개월간 연 2.75%, 9개월간 연 3.03%, 1년간 유지하면 연 3.9%의 이자를 각각 받는 다. /윤영기기자 penfoot@

코스닥 또 퇴출 주의보

한달새 7곳 배임·횡령

코스닥시장에 다시 퇴출 주의보가 발령됐다. 결산기가 아닌데도 한달새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나, 잠재 대상이 된 상장사가 7곳에 달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소프트와 인넷, 엠씨티코어의 횡령 혐의가 확인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인넷과 현대소프트의 경우 실질적인 사주인 이모씨가 각각 200억원(자기자본의 41.64%), 290억원(69.8%)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엠씨티코어는 전 임원인 권모씨가 88억원(35.3%)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같은 기간 지수가 2.11% 내린 코스닥시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코스닥시장 투자주체별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은 기관 5.89%, 외국인 4.41%인데 반해 개인은 -3.79%로 지수 하락률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다. /연합뉴스

코스닥시장에 다시 퇴출 주의보가 발령됐다. 결산기가 아닌데도 한달새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나, 잠재 대상이 된 상장사가 7곳에 달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소프트와 인넷, 엠씨티코어의 횡령 혐의가 확인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된다. 인넷과 현대소프트의 경우 실질적인 사주인 이모씨가 각각 200억원(자기자본의 41.64%), 290억원(69.8%)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엠씨티코어는 전 임원인 권모씨가 88억원(35.3%)의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

같은 기간 지수가 2.11% 내린 코스닥시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코스닥시장 투자주체별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은 기관 5.89%, 외국인 4.41%인데 반해 개인은 -3.79%로 지수 하락률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다. /연합뉴스

백화점·마트, 휴가 특수 특출

무더위에 바캉스 용품 등 7월 매출 경총

지난달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휴가 특수를 토크해 누렸다. 여름 정가세일과 바캉스 품목이 매출을 견인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 7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다.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바캉스 상품들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여름용 액세서리(36%), 선글라스(33.0%)와 아도어용 품(23.4%), 화장품(16.0%), 수영복(12.4%) 등이 잘나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매출이 7.0% 증가했다. 무더위에 에어컨이 지난해보다 27.0%나 잘 나갔으며, 수영복(38%), 선크림(25%), 반바지(17%), 코펠·버너 등 바캉스 용품(약 13%), 텐트(15%) 등 여름용품 매출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1개 점포를 기준으로 매출이 9.0% 상승했다. 스포츠가 22.5%, 영패션 의류가 16.3%, 핸드백이 19.5%, 가전용

품이 17.1%로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대형마트 역시 무더위와 휴가철 특수를 누렸다.

신세계 이마트는 전점 기준으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12.9% 증가했다. 과일(35.6%), 삼겹살 등 축산물(22.9%), 음료·맥주 등 가공식품(11.8%), 바캉스용품(13.7%)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팔렸고, 특히 방방용품 매출은 70.3% 급증했다.

김기봉 신세계백화점 마케팅팀 부장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면서, 관련 용품의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오리 햇 사과 드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일 지하 1층 식품장에서 여름철에 더 맛있는 '아오리 사과'를 선보였다. 아오리 사과는 8월 하순부터 9월초에 빨갛게 익게 되지만, 너무 익으면 상품성이 낮아지고 수확이 어려워 푸른 색을 띠고 있을 때 수확 하는게 특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3일 지하 1층 식품장에서 여름철에 더 맛있는 '아오리 사과'를 선보였다. 아오리 사과는 8월 하순부터 9월초에 빨갛게 익게 되지만, 너무 익으면 상품성이 낮아지고 수확이 어려워 푸른 색을 띠고 있을 때 수확 하는게 특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외환보유액

2860억달러

석달만에 사상 최대치 경신

외환보유액이 석 달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3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7월 말 현재 2859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17억4000만 달러 늘었다. 월별 증가액은 지난해 5월 142억9000만달러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외환보유액 최고 기록이던 지난 4월 말 2788억7000만달러를 3개월 만에 갈아 치웠다.

기준 보유액의 운용 수익이 계속 커지는데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상황이 엇갈리면서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결과라고 한 은은 설명했다.

외환보유액 증가에는 대규모 무역 흑자로 달러화가 대거 유입되면서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어하려는 당국의 달러 매수 개입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인도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업 8월 자금사정 '흐림'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7월보다 8월에 자금사정이 더 안좋을 것으로 내다봤다.

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매출액 20억원이상 533개 기업(응답업체 433개)을 대상으로 '자금사정조사'한 결과, 7월 자금사정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1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 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 수가 같음을 의미한다.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 수가 부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이면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93→99)이 6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90→88)은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자금조달 BSI(97→93) 및 자금수요 BSI(113→109)도 전월 대비 각각 4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이번 달 자금사정 BSI 역시 93에서 89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하는 등 응답 업체들은 하절기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코스피 연고점에도 개미들 '눈물'

외국인·기관 5~12%... 개인투자자 -7% 수익률

코스피지수가 연일 연고점을 갈아 치우고 있지만 개인투자자인 개인들의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회복한 지난달 9일부터 1782.27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돌파한 전날까지 개인이 사들인 상위 20개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3.73% 오른 것과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은 각각 12.

60%와 5.37%를 기록, 개인(-7.15%)과의 수익률 격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개별 종목들 들여다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관이 매수한 20개 종목 가운데 하락한 종목은 단 1개에 불과한 데 반해 개인이 매수한 20개 종목 가운데서는 18개가 내렸다.

개인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3개 종목은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로 이들 종목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4%까지 빠졌다. 특히 개인 순매수 상위 16위에 오

른 대부분은 이 기간 53.65%나 내려 평균 수익률에 큰 타격을 줬다.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1~3위인 LG,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각각 29.09%, 20.59%, 8.02% 올랐으며 외국인도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LG화학, KB금융 등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적중했다.

같은 기간 지수가 2.11% 내린 코스닥시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코스닥시장 투자주체별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은 기관 5.89%, 외국인 4.41%인데 반해 개인은 -3.79%로 지수 하락률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전복장터' (Abalone Marke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uilding, a map, and contact information: 0621576-8600.

Advertisement for '스피치 리더십 과정' (Speech Leadership Course) with a list of course contents and contact information: 010-9441-7000.